

'살아 있는 성경' 모은 순례지

협성대 성서고고학박물관... 성서시대 기록문화 눈길

책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담긴 인류의 마음과 기억 때문이다. 하물며 인간이 문명의 때를 입기 전에 씌어진 책이라면 더 그렇다. 지난달 22일 협성대학교(총장 박근수) 안에 문을 연 성서고고학박물관(관장 윤달)은 오래된 유대교의 경전 등 행간마다 옛 사람들의 신앙심이 느껴지는 책이 보관돼 있다.

성서의 뿌리, 오경 두루마리

아시아권에서 최초라는 성서고고학박물관은 새로 지은 건물 7층 187평의 공간에 성서시대의 고고학적 유물을 비롯, 오경 두루마리 등의 유대교 유물 등 모두 300여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토기·무기·신상·도장·동전류 등이 대부분이지만 이 가운데는 성서시대의 기록문화를 알 수 있는 각종 유물과 유대교 경전인 오경 두루마리가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유대교가 신성시하는 오경 두루마리(torah scrolls)는 성서의 뿌리를 이루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와 함께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 창세기·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로 구성된 오경은 종교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이 기록된 역사서이며, 아름답고 함축성 강한 문장으로 가득한 문학서이기도 하다.

“오경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혀졌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만 13세가 되어 성인식을 할 때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오경을

낭독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오경에 담겨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서고고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 김성 교수(성서고고학)는 그 형식적 가치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성서고고학 박물관이 손때 묻은 유물을 통해 물질문명을 연구하는 곳임을 생각한다면 2세기 전 양피지와 소가죽을 무두질한 사람들의 손길에 무심할 수 없다.

양가죽과 소가죽을 종이처럼 편편하게 매만지고, 광물질과 솜에서 추출한 검은 물질에 끈끈한 동물기름을 섞어 만든 액체를 잉크삼아 갈대펜으로 히브리어를 한자 한자 적어내린 정성. 그것은 토라가 갖는 신성한 힘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토라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닌 것이 아님

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지시봉으로 짚어 가며 읽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죽이 낡아 글씨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상징 통해 종교상황 이해

박물관의 유물 가운데는 기원전 3000년까지 올라가는 유물도 있는데, 그에 비해 토라가 비교적 짧은 연륜을 가지게 된 것도 그 때문. 박물관에는 이밖에도 문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많다.

기원전 800년경 페니키아어의 진수를 보여주는 킬리무 석비, 남부 아랍어·만데어·사마리아어·타무드어 등 3세기에서 8세기까지 근동의 다양한 문자들을 접할 수 있는 석비·주술사발·반지·제삿상·동전 등이 그것이다.

“이들 유물은 거기에 새겨진 상징을 통해 종교적 상황이나 유대민족의 반제국주의적 혁명 등 정치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금석문학과 고문자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지나치게 의미에만 매달려 온 국내 성경연구와 신앙의 방법이 '살아 있는 성경'인 실증적인 유물과 연구를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협성대 성서고고학박물관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물을 접할 수 있도록 교회나 학교 등 요청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직접 찾기 어려운 사람들과도 함께 할 예정이다.

— 이현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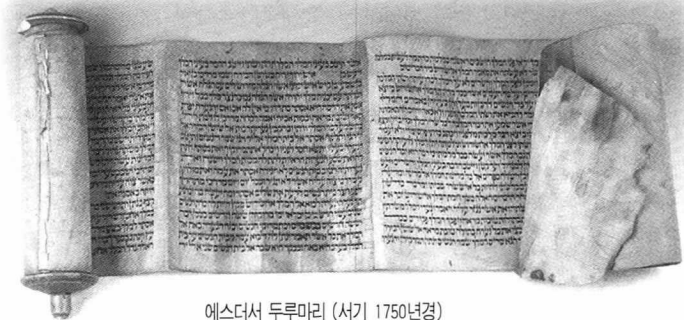
유대교의 오경 두루마리 (서기 1800년경)



주술 사발 (서기 5~7세기)



남부 아랍어 석비 (서기 3~5세기)



에스터서 두루마리 (서기 1750년경)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출판정보

◆ 구독료 안내(주 1회 발행)

6개월 구독시 ▶ 12만원
12개월 구독시 ▶ 20만원

◆ 담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271-0494
FAX. (02)271-0495

명목가치 2만원, 실물가치 20만원, 효용가치 200만원
검색프로그램만으로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출판정보』는 50개의 일간지와 해외의 주요국 저널의 출판관련 기사와 광고를 수록할뿐만아니라 정책자료, 조사자료 등 발굴정보와 자료도 폭넓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광맥입니다. 4개 신문의 구독료나 스크랩하는 인건비정도의 회비로 받아볼수 있는 『출판정보』는 체계화된 정보를 한꺼번에 편안히 앉아서 받아볼수 있는 장점외에 정보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볼수 있는 기사검색프로그램과 검색데이터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는 정보의 가치를 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독자분들의 욕구에 부응코자 제공되는 『출판정보』만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발간형식 : 주1회(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 4×6배판 약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 드립니다.